

# 아동복지학 전공자의 코로나19 이후 불안통제감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우관계와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희연<sup>1</sup>, 조혜영<sup>2\*</sup>

<sup>1</sup>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sup>2</sup>건국대학교 유아교육과

## The Effect of Anxiety Control on Major Satisfaction Post-COVID-19 of Child Welfare Major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Friendship and Faculty-Student Interaction

HeeYeon Yi<sup>1</sup>, HyeYoung Jo<sup>2\*</sup>

<sup>1</sup>Department of child welfare & studi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onku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아동복지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불안통제감이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교우관계와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수도권 S대학교 아동복지학 전공자 135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SPSS 25.0과 AMOS 23.0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측정모형과 구조방정식으로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95% 신뢰구간에서 양측검증 부트스트래핑으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주요결과를 보면, 첫째, 전공만족도와 하위요인인 교과과정, 진로방향, 사회적인식은 불안통제감과 하위요인인 위협통제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불안통제감 하위요인인 감정통제와 통제무력감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공만족도는 교우관계와 교수-학생 상호작용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불안통제감이 전공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지만, 교우관계와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완전 매개하고 있었다. 또한,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불안통제감과 교우관계를 이중 매개하여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교우관계와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재확인된 것이다. 이에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교우관계와 교수-학생 상호작용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friendship and faculty-student interaction in the process of anxiety control after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on major satisfaction among child welfare majors. The subjects were selected from 135 child welfare majors at the S University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SPSS25.0 and AMOS 23.0 software were used for the analysis of the research model. The measurement model was analyzed using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the structural model was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s. The mediation effect was analyzed by bootstrapping with a two-sided test at the 95% confidence interval.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major satisfaction and its subfactors curriculum, career direction, and social awarenes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anxiety control and its subfactor threat control, but not with anxiety control and its subfactors emotion control and helplessness control. Friendship and faculty-student interaction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major satisfaction. Second, anxiety control had no direct effect on major satisfaction and friendship, while faculty-student interaction had a direct effect on major satisfaction. In addition, faculty-student interaction was found to have a dual mediating effect of anxiety control and friendship on major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reaffirmed the importance of friendship and faculty-student interaction as important factors affecting major satisfaction, even post-COVID-19. Therefore, we would like to suggest ways to encourage friendship and faculty-student interaction through systematic support using non-subject educational programs.

**Keywords** : Child Welfare Majors, Post-COVID-19 Anxiety Control(emotion control, threat control, control helplessness), Major Satisfaction(curriculum, career direction, social awareness), Friendship, Faculty-student Interaction, Structural Equation(mediating effect)

\*Corresponding Author : Hyeyoung Jo(Konkuk University)

email: johyey@kku.ac.kr

Received June 16, 2023

Revised August 2, 2023

Accepted September 1, 2023

Published September 30, 2023

## 1. 서론

‘코로나19 이후 심리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2018년 전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은 사회의 구조를 변화시켜 새로운 일상생활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코로나19로 오히려 디지털 사회의 진일보를 피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주장이[1] 있는 반면,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이 나타났다는 상반된 주장 역시 대두[2-4]되면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출현은 두려움을 야기한다는 연구[5]가 주목받게 되었다.

과거 사스(SARS), 메르스(MERS) 등 신종 전염병이 불안과 공포를 야기한다는 연구결과[6]에서는 코로나 19처럼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신종감염병은 다른 질병에 비해 더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두려움의 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7]. 즉, 신종 전염병으로 정서가 불안하고 취약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불확실성은 불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8] 실제로 사스(SARS)에 대한 불안이나 공포를 더 경험할수록 불안정한 정신상태로 외상후 스트레스의 가능성이 높다고 나타난 바 있다[9]. 결국, 신종 전염병은 대응 자체에 어려움을 초래하였는데 이는 불안과 같은 정서적 디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5].

최근 전 세계적으로 충격과 공포의 환경을 조성한 코로나19는 신종 전염병이면서 빠른 속도로 전염되는 호흡기 질환이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격리 조치로 바이러스 전파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한 바 있다. 그런데, 사회적 고립은 불안 등 정서 건강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연구들[10,11]이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홍콩에 비해 불안의 위험군이 약 1%~8%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12] 불안에 주목할 필요가 제기된다.

불안은 불확실성에서 오는 두려움으로[2] 예측에 한계가 야기되는 잠재적 부정적인 사건 및 감정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한 인지-정서적 과정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불안은 특정 내부 감정의 반응이나, 외부의 위협적 사건에 대해 인지된 통제력 부족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문제로[13] 개인이 인식하는 통제력의 부족은 불안과의 연관성을 갖고[14] 사회적 불안을 야기한다[15]. 불안은 사회적 불안을 포함한 보다 거시적인 관점으로 다른 정서적 문제를 동반한다는 점에 예의주시해야 한다[16]. 이에 불안을 통제하는 능력은 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신체적 또는 환경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인식한 개인은 불안이 증가하며[17] 통제력이 부족할수

록 위협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고 더 큰 수준의 불안을 경험할 수 있다[18]. 불안을 통제하는 것이 원활하면 낮은 수준의 불안을 경험하여[14] 성공적인 일상생활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령별 불안 증상은 19세 부터 29세가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12]. 그리고 미국 대학생 가운데 절반 이상이 건강문제로 불안을 꼽았고, 미국인 6명 중 1명은 지난 12개월 동안 불안장애 진단 혹은 치료를 받은 만큼[16] 불안 요인은 정서적인 문제 가운데 비중있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대학생의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19] 코로나19 이전, 불안을 호소하는 대부분은 학업 스트레스를 주원인으로 삼았지만[16] 코로나19 이후에는 새로운 대학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과정에서 발생 되는 예상치 못한 것이 불안의 주된 원인으로 변화되었다. 이는 미래를 설계하는데 제약을 야기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즉, 2019년 이후 입학생은 코로나 학번으로 2019년 부터 2021년 까지 많게는 약 3년 동안 비대면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전공에 대한 지식, 태도, 기술을 제대로 습득하기 어려웠고 이는 앞으로의 진로 선택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이들이 다시 전공에 필요한 역량을 성공적으로 학습하여 적용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연구를 통해 진로 선택과 미래를 잘 설계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대학생의 불안 정서와 대학생활 적응 간의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20], 불안이 대학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20,21] 대학생의 적응적 생활과 불안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불안이 학업활동의 지연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22] 불안통제감은 불확실한 환경에 적응기제로서[23] 전공만족도를 이끄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것이 기대된다.

결국, 전공 즉, 보다 거시적인 맥락에서 소속 학과 만족도는 대학 만족도와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이끌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24]. 그럼에도 코로나19 시기에 고등교육 현장 대부분은 비대면 수업으로 실기보다는 이론 중심의 교육으로 접근하여[24] 전공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돕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대학생은 진로 및 취업 등 인생의 과도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25]. 그러나 코로나19로 이들의 최대 고민거리인 취업과 진로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제가 불가능한 막연한 불안감을[26] 안겨주었다. 이렇게 코로나19는 대학생들의 학업[23,27]과 노동시장

혼란하게 하여 전공과 연계한 취업[28]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코로나19 이후 불안감은 건강한 일상생활을 저해하며, 대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더불어 전염병은 대학생에게 불안한 심리상태를 조성하는 주요 요인으로[19] 청소년기의 극심한 긴장과 걱정은 성인이 되어서 까지 불안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4].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코로나19 이후 대학생의 불안통제감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한편, 인간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하기 때문에 원만하지 못한 사회적 관계는 정신건강의 주된 위험요인이 된다[29].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패턴뿐만 아니라 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에서도 분리불안에 주목하며[3] 관계를 통한 일상생활 회복의 의미를 탐색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대학생에게 대인 관계의 폭이 넓어진 것 역시 대학생활 경험에서 발생 되는 잠재적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데[30] 특히, 코로나19 이후 학과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과 내에서의 대인관계 형성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므로 코로나19 이후의 대인 간의 상호작용이 대학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래와의 상호작용 부재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31]를 다시 주목해야 한다. 즉, 대학생 역시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교우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대학생활에 적응을 잘한다는 것은 학업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형성까지의 경험을 포함하므로[32] 안정적인 교우관계는 코로나19 이후 불안한 정서를 회복시켜 소속된 전공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역시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오래전부터 멘토의 지지는 적응과 성장을 돕는 중요한 요인이 확인되었다[33]. 실제로 대학교에서 교사의 지지적 관계는 소속감을 갖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34]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대학만족도[35]와 적응[36]에 영향을 주는 연구들에서도 관계 형성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학생이 지각하는 교사의 정서적 지원은 학업에 더욱 열중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34]. 그리고 교수자의 학업과 관련한 양질의 상호작용은 학습 참여의 시간과 정적 상관관계를 갖고[37] 교수-학

생 간의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학점이 높다는 연구결과[38]를 통해 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교우관계와 교수-학생 간의 상호작용은 정적 상관관계를 갖고[39]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매개 역할을 하고 있어[36]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들은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 종합하면, 코로나19로 방역을 위한 비대면 수업은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저해하며 대인 관계 맺기가 불가능할 때 불안해진다고 할 수 있다[31,40,41]. 이는 대학생의 교우관계나 교수-학생 간의 관계가 단절되어 미래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어렵게 한 것이다. 때문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불안의 보호 요인을 교우관계와 교수-학생 상호작용으로 설정하여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이들 연구변인들이 전공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보면, 전염병은 대학생에게 불안한 심리상태를 조성한다는 연구결과[19]와 불안증상은 학업활동의 지연과 정적 상관관계를 갖고[23] 불안이 높을수록 사이버 중독에 노출 될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22]는 궁극적으로 전공학습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여러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대학생활 적응[35,36]과 만족도[35], 학업성취[37,38,42]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 교우관계와 교수-학생 간 정적 관계가 나타났고[39],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학교생활 적응에 매개효과로 영향을 주고 있다[36]. 그러나 아직까지 코로나19 이후 대학생들이 자신의 전공 관련 학업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코로나19로 대인관계 형성이 원활하지 않던 2019년 이후 입학생들의 교우관계와 교수-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전공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복지학과 재학생의 코로나19 이후 불안통제감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우관계와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불안통제감과 교우관계, 교수-학생 상호작용, 전공만족도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코로나19 이후 불안통제감과 교우관계, 교수-학생 상호작용, 전공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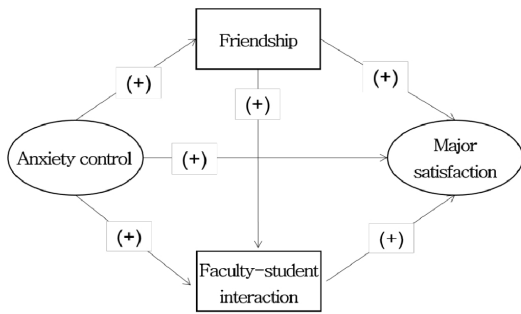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s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수도권 S대학교에서 코로나19를 경험한 2학년에서 4학년 가운데 아동복지학을 전공하는 135명이다. 인구학적 배경 특성을 연령, 학년, 전공, 전공선택 이유, 전공적성정도, 거주유형으로 구분하여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35)

	Spec.	Respondents	Percentage
Age	under the age of 20	11	8.1
	21years old	39	28.9
	22years old	43	31.9
	23years old	16	11.9
	over the age of 24	26	19.3
Grade	2 <sup>nd</sup> grade	35	25.9
	3 <sup>rd</sup> grade	55	40.7
	4 <sup>th</sup> grade	45	33.3
Major	Child welfare	39	28.9
	Child care and education	46	34.1
	Child psychotherapy	26	19.3
	A double major in child welfare	24	17.8
Major choice	voluntary	129	95.6
	involuntary	6	4.4
Major fit	Not a good fit at all	3	2.2
	Not a good fit	11	8.1
	moderate	14	10.4
	Good fit	79	58.5
	Great fit	28	20.7
Type of residence	Commute	80	59.3
	Live by oneself	41	30.4
	Dormitory	13	9.6
	ETC.	1	0.7

본 연구참여자 135명은 모두 여학생으로 연령은 22세 43명(31.9%)으로 가장 많았고, 21세 39명(28.9%), 24세 이상 26명(19.3%)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년은 3학년 55명(40.7%)으로 연구에 가장 많이 참여했고, 4학년 45명(33.3%), 2학년 35명(25.9%)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은 아동보육교육전공이 46명(34.1%)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복지전공 39명(28.9%), 아동심리치료전공 26명(19.3%)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선택이유는 자의적이 129명(95.6%)으로 대부분 스스로의 의지로 전공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공적성정도는 '맞는 것 같다'가 79명(58.5%)으로 가장 많았고, '아주 맞다' 28명(20.7%)으로 약 80%의 전공자가 전공적성에 맞다고 응답하였다. 거주유형은 통학이 80명(59.3%)으로 가장 많았고, 자취 41명(30.4%), 기숙사 13명(9.6%) 순으로 나타났다.

### 2.2 연구도구

#### 2.2.1 불안통제감

본 연구에서 불안통제감을 알아보기 위하여 불안과 관련한 사건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개발한 문항[13]을 한국판으로 타당화하여[43]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표준화 한 ACQ-R(Anxiety Control Questionnaire-Revised)[44]을 사용하였다. 감정통제(10문항), 위협통제(5문항), 통제무력감(4문항) 총 19문항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이 지각하는 불안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불안통제감 전체 .863이며, 하위영역인 감정통제 .823, 위협통제 .875, 통제무력감 .851로 나타났다.

#### 2.2.2 교우관계

본 연구에서 교우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2015년 학부교육 실태조사(National Survey of Student Engagement, 이하 K-NSSE) 문항 가운데 교우관계 문항을 보완하여 분석한 것을 사용하였다[45]. 총 5문항(예: '1.수업에서 쓰인 자료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학생들에게 물어본다', '2.친구들에게 수업자료에 대해 설명해 본 적이 있다', '3.다른 학생들과 함께 수업 프로젝트나 과제를 수행한다', '4.친구들과 수업자료에 대해 함께 토의하거나 공부를 하면서 시험을 준비한다', '5.친구와 진로 또는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해 본 적이 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우관계가 원만하다고 해석한다.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771로 나타났다.

### 2.2.3 교수-학생 상호작용

본 연구에서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K-NSSE 문항에서 교수-학생 상호작용 문항을 발췌하여 분석한 것을 사용하였다[45]. 총 5문항(예: '1.교수와 학점 및 과제물에 대하여 상의한다', '2.수업을 통해 얻게 된 생각에 대하여 교수와 수업시간 이외에 토론한다', '3.학업성공에 대하여 교수로부터 바로 피드백을 받는다', '4.교수와 수업 이외의 활동을 수행한다', '5.교수와 진로 또는 산학협력 관련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해 본 적이 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좋다고 해석한다.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749로 나타났다.

### 2.2.4 전공만족도

본 연구에서 전공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를 알아본 문항을 사용하였다[46]. 본 도구는 전공만족도 잠재변인에 진로와 관련한 측정변인 문항이 있어 코로나19 이후 전공만족도는 진로 설계와 밀접한 관련성[47,48]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대상이 대학생인 만큼 교육학 박사 이상 2명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은 결과 본 연구에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 교과과정(8문항), 진로방향(7문항), 사회적인식(6문항) 총 21 문항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다고 해석한다.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전공만족도 전체 .913이며, 하위영역을 보면, 교과과정 .847, 진로방향 .815, 사회인식 .853으로 나타났다.

## 2.3 연구절차

본 연구에 앞서 2022년 11월 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의 워드코로나(with corona) 정책이 시행되면서 많은 고등교육에서 하이브리드형(대면+비대면) 학사운영을 실행하고 있다. 2023학년도 부터 전면 대면 학사운영이 시행되는 가운데 2023년 2월 3일 부터 7일 까지 연구진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전공만족도와 관련한 심리적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에 불안통제와 교우관계, 교수-학생 상호작용 변인을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2023년 2월 10일 부터 15일 까지 이를 교육학 박사 2명에게 문항을 검증받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공만족도 문항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알아본 문항인 만큼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현재 1

학년(23학번)은 고등교육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전무하므로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받아 이를 반영하였다. 2023년 2월 20일 부터 25일 까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수도권 S대학교 재학생 5명에게 이메일을 통해 설문문항의 내용과 조사방법, 소요시간, 문항 수 등에 전반적인 피드백을 받은 결과,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설문할 것을 요구받았다. 2023년 3월 2일 부터 10일 까지 본 연구진이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활용하여 설문지를 직접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총 137부를 회수하였으나, 코딩하는 과정에서 1학년 2부를 제외한 135부(98.5%)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 2.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고 매개변인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배경특성은 빈도(%)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연구변인인 불안통제감, 교우관계, 교수-학생 상호작용, 전공만족도의 경향성(M, SD)과 정규성(skewness, kurtosis)을 분석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로 알아보았다. 셋째,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는 Pearson의 상관관계로 분석하였고,  $p < .05$ ,  $p < .01$ ,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넷째, 측정모형은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이하 CFA)으로 알아보았고,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집중타당성을 분석하였다. 개념신뢰도(CR) .70이상, 평균분산추출(AVE) .50이상의 기준으로 살펴보았다[49]. 측정모형의 다양한 적합도 지수를 알아보고, 표준화 계수( $\beta$ ) .4이상의 기준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는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 이하 SEM)으로 분석하였고,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았다. Chi Square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고[50], NFI, IFI, TLI, CFI는 .90이상의 기준[51]으로 확인하였으며, RMSEA .08이하, SRMR .05이하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양측검증으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으로 분석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 3.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의 연구변인인 불안통제감과 하위영역인 감정통제, 위협통제, 통제무력감과 교우관계, 교수-학생

상호작용, 전공만족도와 하위영역인 학과 교과과정, 학과 진로방향, 학과 사회적인식의 경향성은 평균(M)과 표준편차(SD)로 분석하였고, 정규성은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로 분석하여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2. Tendency and normality of variables (N=135)

	M	SD	skewness	kurtosis
1. Anxiety control	3.25	.56	-.09	-.35
1-1. Emotion control	3.15	.61	-.12	.12
1-2. Threat control	3.60	.93	-.51	-.24
1-3. Control helplessness	3.05	.53	.24	-.44
2. Friendship	3.45	.78	-.38	.62
3. Faculty-student interaction	2.23	.75	.68	1.26
4. Major satisfaction	3.82	.49	-.41	.82
4-1. Curriculum	3.81	.49	-.31	1.34
4-2. Career direction	3.66	.58	-.07	-.05
4-3. Social awareness	4.01	.65	-.61	.64

연구변인들의 경향성을 분석한 결과 불안통제감 평균은 3.25점(SD=.56)이며, 하위요인의 감정통제 3.15점(SD=.61), 위협통제 3.60점(SD=.93), 통제무력감 3.05점(SD=.53)으로 나타났다. 교우관계 평균은 3.45점(SD=.78)이며, 교수-학생 상호작용 평균은 2.23점(SD=.75)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 평균은 3.82점(SD=.49)이며, 하위요인의 학과 교과과정 3.81점(SD=.49), 학과 진로방향 3.66점(SD=.58), 학과 사회적 인식 4.01점(SD=.65)으로 나타났다.

연구변인의 정규성에서 왜도는 -.61 부터 .68범위이며, 첨도는 -.44 부터 1.34범위로 확인되었다.

### 3.1 코로나19 이후 불안통제감과 교우관계, 교수-학생 상호작용, 전공만족도 간의 관계

연구변인인 불안통제감과 교우관계, 교수-학생 상호작용, 전공만족도 간의 관계성은 Pearson의 상관관계로 분석하였다. 전공만족도를 중심으로 보면, 불안통제감( $r=.226, p<.01$ )과 하위영역인 위협통제( $r=.249, p<.01$ )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감정통제( $r=.160, p>.05$ )와 통제무력감( $r=.125, p>.05$ )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교우관계( $r=.359, p<.01$ )와 교수-학생 상호작용( $r=.337, p<.01$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전공만족도의 하위영역인 학과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보면, 불안통제감( $r=.188, p<.05$ )과 하위영역인 위협통제( $r=.223, p<.01$ )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감정통제( $r=.223, p>.05$ )와 통제무력감( $r=.093, p>.05$ )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교우관계( $r=.278, p<.01$ )와 교수-학생 상호작용( $r=.300, p<.01$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학과 진로방향을 중심으로 보면, 불안통제감( $r=.196, p<.05$ )과 하위영역인 위협통제( $r=.203, p<.05$ )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감정통제( $r=.147, p>.05$ )와 통제무력감( $r=.113, p>.05$ )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교우관계( $r=.354, p<.01$ )와 교수-학생 상호작용( $r=.353, p<.01$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학과 진로방향을 중심으로 보면, 불안통제감( $r=.195, p<.05$ )과 하위영역인 위협통제( $r=.213, p<.05$ )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감정통제( $r=.138, p>.05$ )와 통제무력감( $r=.114, p>.05$ )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

Table 3. Degree and correlations among

(N=135)

	1	1-1	1-2	1-3	2	3	4	4-1	4-2	4-3
1. Anxiety control	1									
1-1. Emotion control	.901**	1								
1-2. Threat control	.856**	.603**	1							
1-3. Control helplessness	.544**	.326**	.358**	1						
2. Friendship	.346**	.330**	.279**	.176*	1					
3. Faculty-student interaction	.264**	.250**	.244**	.074	.334**	1				
4. Major satisfaction	.226**	.160	.249**	.125	.359**	.337**	1			
4-1. Curriculum	.188*	.223	.223**	.093	.278**	.300**	.854**	1		
4-2. Career direction	.196*	.147	.203*	.113	.354**	.353**	.899**	.708**	1	
4-3. Social awareness	.195*	.138	.213*	.114	.285**	.206*	.804**	.479**	.584**	1

\*\* $p<.01$ , \* $p<.05$

가 나타나지 않았다. 교우관계( $r=.285, p<.01$ )와 교수-학생 상호작용( $r=.206, p<.05$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Table 3 참조).

### 3.2 코로나19 이후 불안통제감과 교우관계, 교수-학생 상호작용, 전공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

#### 3.2.1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측정변인인 교우관계와 교수-학생 상호작용 변인을 제외한 불안통제감과 전공만족도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설명하는가를 규명하기 위해 CFA를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X^2=2.697(df=8, p=.952, X^2/DF=.337)$ ,  $SRMR=.0221$ ,  $NFI=.989$ ,  $IFI=1.023$ ,  $TLI=1.044$ ,  $CFI=1.000$ ,  $RMSEA(LO-HI)=.000(.000-.000)$ 으로 Perfect fit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추정방법에 관계없이 측정모형이 데이터에 의해 완벽하게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52,53]. 그리고 IFI, TLI, CFI가 1.0이상으로 분석된 결과는 모델이 데이터와 일치하며, 주어진 데이터를 완벽하게 설명하고 예측하는 매우 우수한 모델임을 의미하는 것이다[53](Table 4 참조).

Table 4. The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X^2$	$X^2/DF$	RMSEA (LO-HI)	SRMR	NFI	IFI	TLI	CFI
model fit	2.697	.337	.000 (.000-.000)	.0221	.989	1.023	1.044	1.000

측정모형의 경로계수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Table 5. The factor value of measurement model & result of validity evaluation

sub-factor	factor	B	$\beta$	S.E.	C.R.	P	CR(t)	AVE
Emotion control		1	.717					
Threat control	Anxiety control	1.809	.841	.375	4.819	***	.858	.681
Control helplessness		.532	.435	.124	4.302	***		
Curriculum		1	.772					
Career direction	Major satisfaction	1.406	.915	.173	8.129	***	.931	.821
Social awareness		1.095	.637	.151	7.241	***		

\*\*\* $p<.001$

표준화계수( $\beta$ ) .4이상 기준으로 보면, 불안통제감 하위변인의 감정통제( $\beta=.717$ ), 위협통제( $\beta=.841$ ), 통제무력감( $\beta=.435$ )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

만족도 하위변인인 교과과정( $\beta=.722$ ), 진로방향( $\beta=.915$ ), 사회적인식( $\beta=.637$ )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타당성은 C.R.(t) .858 부터 .931범위로 나타났고, AVE .681 부터 .821범위로 나타났다.

Table 5를 바탕으로 측정모형을 Fig. 2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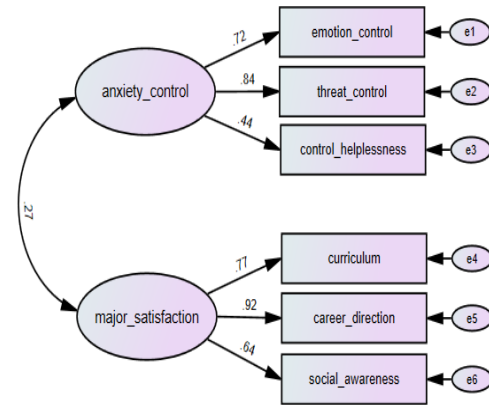


Fig. 2. Measurement model

#### 3.2.2 구조모형 검증

불안통제감과 교수-학생 상호작용, 교우관계, 전공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SEM으로 알아보았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X^2=6.708(df=16, p=.978, X^2/DF=.419)$ ,  $SRMR=.0263$ ,  $NFI=.978$ ,  $IFI=1.032$ ,  $TLI=1.059$ ,  $CFI=1.000$ ,  $RMSEA(LO-HI)=.000(.000-.000)$ 으로 나타났다. 적합도를 통해 살펴본 결과, 구조모형은 자료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Table 6 참조).

Table 6. The result of proposition model

	$X^2$	$X^2/DF$	RMSEA (LO-HI)	SRMR	NFI	IFI	TLI	CFI
model fit	6.708	.419	.000 (.000-.000)	.0263	.978	1.032	1.059	1.000

불안통제감은 교우관계( $\beta=.392, p<.001$ ), 교수-학생 상호작용( $\beta=.207, p<.05$ )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전공만족도( $\beta=.253, p>.05$ )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교우관계는 교수-학생 상호작용( $\beta=.253, p<.01$ ), 전공만족도( $\beta=.265, p<.01$ )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전공만족도( $\beta=.266, p<.01$ )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able 7 참조).

Table 7. The result of hypotheses testing

path	B	$\beta$	S.E.	C.R.	P
Friendship	.652	.392	.168	3.882	***
Faculty-student interaction ← Anxiety control	.330	.207	.166	1.994	.046
Major satisfaction	.063	.079	.086	0.732	.464
Faculty-student interaction ← Friendship	.242	.253	.086	2.818	.005
Major satisfaction	.128	.265	.047	2.741	.006
Major satisfaction ← Faculty-student interaction	.134	.266	.047	2.869	.004
Emotion control	1.000	.774			
Threat control ← Anxiety control	1.558	.781	.271	5.741	***
Control helplessness	.494	.437	.115	4.305	***
Curriculum	1.000	.764			
Career direction ← Major satisfaction	1.436	.926	.164	8.735	***
Social awareness	1.098	.631	.152	7.22	***

\*\*\* $p < .001$

불안통제감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우관계와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트스트랩(bootstrap) 추정방법으로 95% 신뢰구간에서 분석하였다. 불안통제감은 교우관계에 직접적( $\beta = .392, p < .05$ )으로 영향을 주고, 교수-학생 상호작용에 직접적( $\beta = .207, p < .05$ ), 간접적( $\beta = .099, p < .05$ )으로 영향을 주는 반면, 전공만족도에 직접적( $\beta = .079, p > .05$ )으로 영향을 주진 않지만, 간접적( $\beta = .186, p < .05$ )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우관계는 교수-학생 상호작용에 직접적( $\beta = .253, p < .05$ )으로 영향을 주고, 전공만족도에 직접적( $\beta = .265, p < .05$ ), 간접적( $\beta = .067, p < .05$ )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전공만족도에 직접적( $\beta = .266, p < .05$ )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참조).

Table 8. The total effect of degradation results

path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Friendship	.392*		.392*
Faculty-student interaction ← Anxiety control	.207*	.099*	.306*
Major satisfaction	.079	.186*	.264*
Faculty-student interaction ← Friendship	.253*		.253*
Major satisfaction	.265*	.067*	.333*
Major satisfaction ← Faculty-student interaction	.266*		.266*

\* $p < .05$

이러한 연구결과로 보면, 불안통제감이 전공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지만, 교우관계와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완전 매개하여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이중 매개하여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8을 바탕으로 구조모형을 Fig. 3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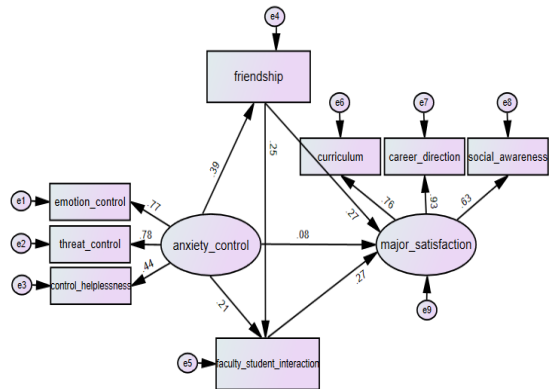


Fig. 3. Structural model

####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복지학과 재학생의 코로나19 이후 불안통제감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우관계와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전공만족도와 하위요인인 교과과정, 진로방향, 사회적인식은 불안통제감과 하위요인인 위협통제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불안통제감 하위요인인 감정통제와 통제무력감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공만족도는 교우관계와 교수-학생 상호작용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우관계와 교수-학생 간의 상호작용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힌 연구결과[39]를 지지하는 것이다.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대학생활 적응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고[36] 교우관계 및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대학몰입과 긍정적인 관계성[39], 교수자의 학업과 관련한 양질의 상호작용은 학습 참여의 시간과 정적 상관관계[37]임을 밝힌 연구결과의 맥락과 같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불안증상은 학업활동의 지연과 정적 상관관계임을 밝힌 연구결과[23]와 의미를 함께 하는 것이다. 전공만족도(교과과정, 진로방



향, 사회적인식)와 위협통제 간의 정적 상관관계의 결과는 사회인지 이론을 기반으로 진로와 학업적 관심, 선택, 성과에 대한 통합적인 이론으로 제시하여 관계성을 살펴본 연구결과[54]와 맥락을 함께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높은 수준의 불안은 전공만족도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교우관계와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둘째, 불안통제감이 전공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지만, 교우관계와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완전 매개하고 있었다. 또한,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불안통제감과 교우관계를 이중 매개하여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선행연구가 한정적이므로 유사한 맥락에서 비교하고자 한다. 대학몰입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은 교수-학생 상호작용이며, 교우관계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검증된 연구결과[39]와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대학생활 적응에 매개효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힌 연구결과[36]와 의미를 같이하는 것이다. 또한,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교수자-학습 상호작용은 대학생활 적응[35,36]과 만족도[35], 학업성과[37,38,42]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힌 연구결과를 다시금 확인한 것이다.

반면, 불안통제감이 전공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는 인구학적 배경 특성이나, 사회적 지지, 학업성취도 등 환경변인에 의해 영향력이 상쇄되었을 수 있다. 이에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외변인을 통제하는 연구설계는 두 변인 간의 영향력을 더 잘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교우관계와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영향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정규 교육과정에서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대인관계 형성을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교우관계와 교수-학생 상호작용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코로나19는 호흡기 질환으로 빠르게 전염이 확산되면서 사회적 격리를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최소화 한 바 있다. 사회적 관계 단절과 불안증상 간의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힌 여러 선행연구들[31,40,41]에서 보듯이 소통의 단절은 대면 수업까지 영향을 주어 공동체 활동보다는 개인 활동에 더욱 치중하도록 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교우관계를 향상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년별 멘토/멘티 프로그램 지원 뿐만 아니라 동기 간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멘토/멘티 프로그램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미 많은 대학에서 학습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동아리 지원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에 학문별 맞춤형 전공 동아리 학습을 지원하는 등 목적성을 부여하여 성과를 도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비교과 프로그램을 교과목과의 연계를 통해 전공에 흥미를 갖고 역량중심의 교육을 이끌 수 있도록 예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상호작용 방법을 온라인에서도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많은 대학에서는 코로나19로 온라인 기술을 활용한 상호작용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55,56]. 그러나 대부분은 온라인 상담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이를 더욱 확장하여 심리-정서 뿐만 아니라 학습까지 적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상용화 되고 있는 Zoom, Microsoft Teams, Google Meet 등 온라인 도구를 사용하여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위한 플랫폼을 통해 멘토링 상담의 다채로운 소통이 도입되어야 할 것을 권고한다.

둘째,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진로와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직무와 관련한 어려움에 영향을 주는[57] 주된 원인으로 주목받으면서 진로와 관련한 상담을 더욱 지원할 것을 시사한다. 예컨대, 많은 대학이 고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취업과 관련한 진로상담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pass/fail의 진로상담 교과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전공에 대한 이해를 돕고 소속학과에 대한 만족을 이끌어 중도탈락을 방지할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그리고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교과목의 환류를 위해 KPI(key performance indicators, 이하 KPI)를 통한 취업률, 중도탈락률, 소속학과 만족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코로나19 이후 대학생의 불안한 정서의 통제 능력이 이들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지만, 이 과정에서 교우관계나 교수-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요인임을 다시금 확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첫째, 불안은 여자가 남자보다 빈번하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4]. 본 연구대상 역시 여자대학교에 한정되어 코로나19로 발생된 심리-정서 문제를 성별에 따라 심도있게 다루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코로나19 시기 경제적 여

유,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의 불안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 되어[23]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배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는 인구학적 배경 특성에 따라 체감하는 강도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의 일반화에 주의를 요구하는 바이다. 추후, 이를 고려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의미있는 시사점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고등학교 때의 압박감은 대학에 입학하여서 까지 불안을 야기하는[16] 등 대학생의 다양한 불안 요인의 원인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차후, 대학생의 인구학적 배경 특성 및 환경에 따른 불안 요인을 면밀하게 탐색하여 불안 원인에 따른 지원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1] H. Y. Jo, S. W. Oh,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al management for COVID-19, satisfaction with online learning, perception about non-face-to-face classes, and willingness to continue learning of S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4, No.5, pp.164-173, May 2023.  
DOI: <https://doi.org/10.5762/KAIS.2023.24.5.164>
- [2] E. A. Holmes, R. C. O'Connor, V. H. Perry, I. Tracey, S. Wessely, L. Arseneault et al., "Multidisciplinary research priorities for the COVID-19 pandemic: A call for action for mental health science", *The Lancet: Psychiatry*, Vol.7, No.6, pp.547-560, June 2020.  
DOI: [https://doi.org/10.1016/S2215-0366\(20\)30168-1](https://doi.org/10.1016/S2215-0366(20)30168-1)
- [3] W. Y. Jiao, L. N. Wang, J. Liu, S. F. Fang, F. Y. Jiao, M. Pettoello-Mantovani, E. Somekh, "Behavioral and emotional disorders in children during the COVID-19 epidemic", *The Journal of Pediatrics*, Vol.221, pp.264-266, June 2020.  
DOI: <https://doi.org/10.1016/j.jpeds.2020.03.013>
- [4] S. J. Zhou, L. G. Zhang, L. L. Wang, Z. C. Guo, J. Q. Wang, J. C. Chen, M. Liu, X. Chen, J. X. Chen, "Prevalence and socio-demographic correlates of psychological health problems in Chinese adolescents during the outbreak of COVID-19",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Vol.29, No.6, pp.749-758, May 2020.  
DOI: <https://doi.org/https://doi.org/10.1007/s00787-020-01541-4>
- [5] A. Shigemura, J. Billieux, V. Starcevic, "The four horsemen of fear: An integrated model of understanding fear experienc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Clin Neuropsychiatry*, Vol.17, No.2, pp.41-45, April 2020.  
DOI: <https://doi.org/10.36131/CN20200202>
- [6] I. Arpacı, K. Karataş, M. Baloğlu, "The development and initial tests for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COVID-19 phobia scale (C19P-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164, pp.110108, October 2020.  
DOI: <https://doi.org/10.1016/j.paid.2020.110108>
- [7] C. Cheng, C. S. K. Tang, "The psychology behind the masks: Psychological responses to the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outbreak in different regions",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7, No.1, pp.3-7, April 2004.  
DOI: <https://doi.org/10.1111/j.1467-839X.2004.00130.x>
- [8] T. A. Brown, K. S. White, J. P. Forsyth, D. H. Barlow, "The structure of perceived emotional control: Psychometric properties of a revised anxiety control questionnaire", *Behavior Therapy*, Vol.35, No.1, pp.75-99, December 2004.  
DOI: [https://doi.org/10.1016/S0005-7894\(04\)80005-4](https://doi.org/10.1016/S0005-7894(04)80005-4)
- [9] J. T. Lau, X. Yang, E. Pang, H. Y. Tsui, E. Wong, Y. K. Wing, "SARS-related perceptions in Hong Kong", *Emerging Infect Disease*, Vol.11, No.3, pp.417-424, March 2005.  
DOI: <https://doi.org/10.3201/eid1103.040675>
- [10] M. Elovainio, C. Hakulinen, L. Pulkki-Råback, M. Virtanen, K. Josefsson, M. Jokela et al., "Contribution of risk factors to excess mortality in isolated and lonely individuals: An analysis of data from the UK biobank cohort study", *Lancet Public Health*, Vol.2, No.6, pp.e260-e266, June 2017.  
DOI: [https://doi.org/10.1016/S2468-2667\(17\)30075-0](https://doi.org/10.1016/S2468-2667(17)30075-0)
- [11] T. Matthews, A. Danese, A. Caspi, H. L. Fisher, S. Goldman-Mellor, A. Képa et al., "Lonely young adults in modern Britain: Findings from an epidemiological cohort study", *Psychological Medicine*, Vol.49, No.2, pp.268-277, January 2019.  
DOI: <https://doi.org/10.1017/S0033291718000788>
- [1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n Society for Traumatic Stress Studies. January 2021 National Mental Health Survey [Internet],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n Society for Traumatic Stress Studies [cited 2021 January 18], Available From: [http://kstss.kr/wp-content/uploads/2021/01/KSTSS21-01-18-COVID-19-%EA%B5%AD%EB%AF%BC%EC%A0%95%EC%8B%A0%EA%B1%B4%EA%B0%95%EC%8B%A4%ED%83%9C%EC%A1%B0%EC%82%AC\\_4%EC%B0%A8.pdf](http://kstss.kr/wp-content/uploads/2021/01/KSTSS21-01-18-COVID-19-%EA%B5%AD%EB%AF%BC%EC%A0%95%EC%8B%A0%EA%B1%B4%EA%B0%95%EC%8B%A4%ED%83%9C%EC%A1%B0%EC%82%AC_4%EC%B0%A8.pdf) (accessed May 20, 2023)
- [13] R. M. Rapee, M. G. Craske, T. A. Brown, D. H. Barlow, "Measurement of perceived control over anxiety-related events", *Behavior Therapy*, Vol.27, No.2, pp.279-293, March 1996.  
DOI: [https://doi.org/10.1016/S0005-7894\(96\)80018-9](https://doi.org/10.1016/S0005-7894(96)80018-9)
- [14] J. L. Frala, E. W. Leen-Feldner, H. Blumenthal, C. C. Barreto, "Relations among perceived control over anxiety-related events, worry, and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in a sample of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Vol.38, No.2, pp.237-247, February 2010.  
DOI: <https://doi.org/10.1007/s10802-009-9365-6>
- [15] S. G. Hofmann, "Perception of control over anxiety

- mediates the relation between catastrophic thinking and social anxiety in social phobi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Vol.43, No.7, pp.885-895, July 2005.  
DOI: <https://doi.org/10.1016/j.brat.2004.07.002>
- [16] H. Jan, Anxious students strain college mental health centers [Internet]. New York Times Insider: Anxiety on Campus: Reporter’s Notebook [cited 2015 May 27], Available From: <https://static1.squarespace.com/static/576bf294d2b857d28be440ba/t/57b3a88159cc6834cfa2bfba/1471391873288/Anxious+Students+Strain+College+Mental+Health+Centers+-+NYTimes.com.pdf> (accessed May 10, 2023)
- [17] M. J. Zvolensky, G. H. Eifert, C. W. Lejuez, D. R. Hopko, J. P. Forsyth, “Assessing the perceived predictability of anxiety-related events: A report on the perceived predictability index”,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Vol.31, pp.201-218, September 2000.  
DOI: [https://doi.org/10.1016/s0005-7916\(01\)00006-4](https://doi.org/10.1016/s0005-7916(01)00006-4)
- [18] L. Lin, J. Y. Zhang, P. S. Wang, X. W. Bai, X. H. Sun, L. Zhang, “Perceived control moderates the impact of academic stress on the attention process of working memory in male college students”, *The International Journal on the Biology of Stress*, Vol.23, No.3, pp.256-264, May 2020.  
DOI: <https://doi.org/10.1080/10253890.2019.1669557>
- [19] S. L. Mei, J. X. Yu, B. W. He, J. Y. Li, “Psychological investiga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a university in Jilin province”, *Medicine and Society (Berkeley)*, Vol.24, No.5, pp.84-86, May 2011.
- [20] S. S. Baek, H. Y. Cho, “Influence of health promotion behaviors and anxiety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in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Wellness*, Vol.13, No.3, pp.103-112, August 2018.  
DOI: <https://doi.org/10.21097/ksw.2018.08.13.3.103>
- [21] C. A. Alfano, D. C. Beidel, S. M. Turner, “Considering cognition in childhood anxiety: Conceptual methodological and developmental issues”, *Clinical Psychology Review*, Vol.22, No.8, pp.1209-1238, November 2002.  
DOI: [https://doi.org/10.1016/s0272-7358\(02\)00205-2](https://doi.org/10.1016/s0272-7358(02)00205-2)
- [22] W. Cao, Z. Fang, G. Hou, M. Han, X. Xu, J. Dong, J. Zheng, “The psychological impact of the COVID-19 epidemic on college students in China”, *Psychiatry Research*, Vol.287, pp.112934, May 2020.  
DOI: <https://doi.org/10.1016/j.psychres.2020.112934>
- [23] F. Mushtaq, A. R. Bland, A. Schaefer, “Uncertainty and cognitive control”, *Frontiers in Psychology*, Vol.2, pp.249, October 2011.  
DOI: <https://doi.org/10.3389/fpsyg.2011.00249>
- [24] H. Y. Jo,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department, university satisfaction, and adaptation to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4, No.5, pp.250-259, May 2023.  
DOI: <https://doi.org/10.5762/KAIS.2023.24.5.250>
- [25] R. Misra, M. McKean, S. West, T. Russo, “Academic stress of college students: Comparison of student and faculty perceptions”, *College Student Journal*, Vol.34, No.2, pp.236-245, January 2000.
- [26] S. B. Guessoum, J. Lachal, R. Radjack, E. Carretier, S. Minassian, L. Benoit, M. R. Moro, “Adolescent psychiatric disorder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lock down”, *Psychiatry Research*, Vol.291, pp.113264, September 2020.  
DOI: <https://doi.org/10.1016/j.psychres.2020.113264>
- [27] A. Cornine, “Reducing nursing student anxiety in the clinical setting: An integrative review”, *Nursing Education Perspectives*, Vol.41, No.4, pp.229-234, July/August 2020.  
DOI: <https://doi.org/10.1097/01.NEP.0000000000000633>
- [28] C. Wang, P. W. Horby, F. G. Hayden, G. F. Gao, “A novel coronavirus outbreak of global health concern”, *The Lancet*, Vol.395, No.10223, pp.470-473, June 2020.  
DOI: [https://doi.org/10.1016/S0140-6736\(20\)30185-9](https://doi.org/10.1016/S0140-6736(20)30185-9)
- [29] S. Cacioppo, A. J. Grippo, S. London, L. Goossens, J. T. Cacioppo, “Loneliness: Clinical import and interventions”,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Vol.10, No.2, pp.238-249, March 2015.  
DOI: <https://doi.org/10.1177/1745691615570616>
- [30] D. L. Coffman, T. D. Gilligan, “Social support, stress and self-efficacy: Effects on student’s satisfaction”, *Journal of College Student Retention*, Vol.4, No.1, pp.53-66, May 2002.  
DOI: <https://doi.org/10.2190/BV7X-F87X-2MXL-2B3L>
- [31] E. E. Forbes, R. E. Dahl, “Research review: Altered reward function in adolescent depression: what, when and how?”,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Vol.53, No.1, pp.3-15, June 2012.  
DOI: <https://doi.org/10.1111/j.1469-7610.2011.02477.x>
- [32] M. E. Woolley, A. Grogan-Kaylor, “Protective family factors in the context of neighborhood: Promoting positive school outcomes”, *Family Relations*, Vol.55, No.1, pp.93-104, January 2006.  
DOI: <https://doi.org/10.1111/j.1741-3729.2006.00359.x>
- [33] M. W. Cannister, “Mentoring and the spiritual well-being of late adolescents”, *Adolescence*, Vol.34, No.136, pp.769-779, Winter 1999.
- [34] R. W. Roeser, J. S. Eccles, A. J. Sameroff, “School as a context of early adolescents’ academic social-emotional development: A summary of research findings”,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Vol.100, No.5, pp.443-471, May 2000.  
DOI: <https://doi.org/10.1086/499650>
- [35] H. A. Davis, “Conceptualizing the role and influence of student-teacher relationships on children’s social and cognitive development”, *Educational Psychologist*, Vol.38, No.4, pp.207-234, December 2003.

- DOI: [https://doi.org/10.1207/S15326985EP3804\\_2](https://doi.org/10.1207/S15326985EP3804_2)
- [36] J. Y. Kim, W. R. Kim, Y. S. Son, J. S. Kim, "The mediated effects of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n the relations between academic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of college studen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8, No.3, pp.603-619, February 2018.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18.18.3.603>
- [37] E. S. Park, E. Swanson, "Balancing time in college: Examining time-use and academic outcomes of students in a comprehensive college transition program", *AERA Open*, Vol.7, No.1, pp.1-17, February 2021.  
DOI: <https://doi.org/10.1177/2332858421995215>
- [38] G. Anaya, D. G. Cole, "Latina/o student achievement: Exploring the influence of student-faculty interactions on college grade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Vol.42, No.1, pp.3-14, January 2001.
- [39] M. R. Park, J. W. Yoon, H. J. Lee, "A study on college students' teacher-learner interaction, friendship, and self-efficacy impact on institutional commitment", *Culture and Convergence*, Vol.43, No.12, pp.325-338, December 2021.  
DOI: <https://doi.org/10.33645/cnc.2021.12.43.12.325>
- [40] Z. Kmietowicz, "Rules on isolation rooms for suspected covid-19 cases in GP surgeries to be relaxed", *British Medical Journal*, Vol.21, No.368, pp.m707, February 2020.  
DOI: <https://doi.org/10.1136/bmi.m707>
- [41] C. Xiao, "A novel approach of consultation on 2019 novel coronavirus (COVID-19)-Related psychological and mental problems: Structured letter therapy", *Psychiatry Investig*, Vol.17, No.2, pp.175-176, February 2020.  
DOI: <https://doi.org/10.30773/pi.2020.0047>
- [42] G. D. Kuh, "What we are learning about student engagement from NSSE", *Change*, Vol.35, No.2, pp.24-32, March-April 2003.  
DOI: <https://doi.org/10.1080/00091380309604090>
- [43] Y. R. Cho, E. J. Kim,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anxiety control questionnair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23, No.2, pp.503-520, May 2004.
- [44] Y. H. Oh, K. S. Oh,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revised Korean version of the anxiety control questionnaire: Testing configural and metric invariance across clinical and non-clinical sampl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28, No.4, pp.995-1010, November 2009.  
DOI: <https://doi.org/10.15842/kjcp.2009.28.4.003>
- [45] D. H. Kwan, *The effect of faculty-student interaction and peer relations upon academic self-efficacy of university students*, Docto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pp.32-33, 2017.
- [46] Y. J. Han, *Influence of major satisfaction of high school students specializing in cooking on course maturity*,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Busan, Korea, pp.48, 2008.
- [47] J. Lee, M. Solomon, T. Stead, B. Kwon, L. Ganti, "Impact of COVID-19 on the mental health of US college students", *BMC Psychology*, Vol.9, No.1, pp.95, June 2021.  
DOI: <https://doi.org/10.1186/s40359-021-00598-3>
- [48] D. Wulandari, B. S. Narmaditya, W. Wahjoedi, Wahjoedi, S. H. Utomo, M. Witjaksono, P. Hardinto, M. P. Priambodo, "Factors affecting students in choosing community economy in development economics program, universitas negeri malang", *International Journal of Economic Research*, Vol.14, No.6, pp.71-79, January 2017.
- [49] J. Anderson, D. Gerb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Psychological Bulletin*, Vol.103, No.3, pp.411-423, May 1988.  
DOI: <https://doi.org/10.1037/0033-2909.103.3.411>
- [50] B. Wheaton, B. Muthen, D. F. Alwin, G. Summers, "Assessing reliability and stability in panel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Vol.8, No.1, pp.84-136, April 1977.  
DOI: <https://doi.org/10.2307/270754>
- [51] P. M. Bentler,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Vol.107, No.2, pp.238-246, March 1990.  
DOI: <https://doi.org/10.1037/0033-2909.107.2.238>
- [52] Y. Xia, Ya. Yang, "RMSEA, CFI, and TLI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ordered categorical data: The story they tell depends on the estimation method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51, No.1, pp.409-428, June 2018.  
DOI: <https://doi.org/10.3758/s13428-018-1055-2>
- [53] L. T. Hu, P. M. Bentler,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Vol.6, No.1, pp.1-55, June 1999.  
DOI: <https://doi.org/10.1080/10705519909540118>
- [54] R. W. Lent, S. D. Brown, G. Hackett,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45, No.1, pp.79-122, August 1994.  
DOI: <https://doi.org/10.1006/jvbe.1994.1027>
- [55] M. Pulat, F. Barutçu-Yıldırım, "Online counseling and ethics: A systematic review of empirical research", *The Journal of Clinical and Mental Health Counseling*, Vol.1, No.2, pp.1-12, January 2022.
- [56] M. Feijt, Y. de Kort, I. Bongers, J. Bierbooms, J. Westerink, W. IJsselstein, "Mental healthcare goes online: Practitioners' experiences of providing mental health car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Cyber 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Vol.23, No.12, pp.860-864, August 2020.  
DOI: <https://doi.org/10.1089/cyber.2020.0370>

- [57] J. Y. Kwon, H. Y. Jo, S. J. Song, "Effects of COVID-19 social anxiety perceived by kindergarten teachers on job stress and job burnout: Mediating effects of post-COVID-19 work performance factor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2, No.23, pp.401-412, December 2022.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22.22.23.401>

---

이 희 연(HeeYeon Yi)

[정회원]



- 2007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복지학과 아동심리치료 전공 (문학석사)
- 2015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복지학과 아동심리치료 전공 (철학박사)
- 2019년 3월 ~ 현재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겸임교수

〈관심분야〉

아동청소년정신병리, 놀이치료, 임상심리

---

조 혜 영(HyeYoung Jo)

[정회원]



- 2013년 2월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교육학석사)
- 2017년 2월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문학박사)
- 2022년 3월 ~ 현재 : 건국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관심분야〉

유아교육, 혁신교수법, 종단연구, AI